

2. 팬데믹 이후 전세계 실업자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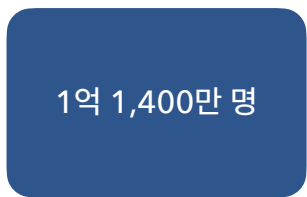


팬데믹 이후 전 세계 1억 1,400만 명 실업자 발생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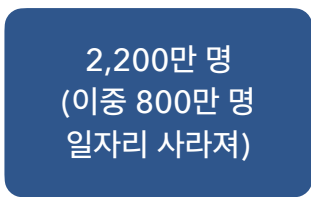
-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가 지난 7월 7일 발표한 ‘2021년 고용 전망 보고서’(Employment Outlook 2021)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전 세계 1억 1,4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OECD 회원국(37개국)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실업자는 2,200만 명인데 이중 800만 명은 일자리가 아예 사라지거나 기계 등으로 대체돼 돌아갈 곳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.(캐셔, 사서, 속기사, 여생사직원, 비서 등)

[그림] 팬데믹 이후 실업자 발생 현황(전 세계 vs OECD회원국)

팬데믹 이후 전세계 실업자 발생



팬데믹 이후 OECD(37개국) 실업자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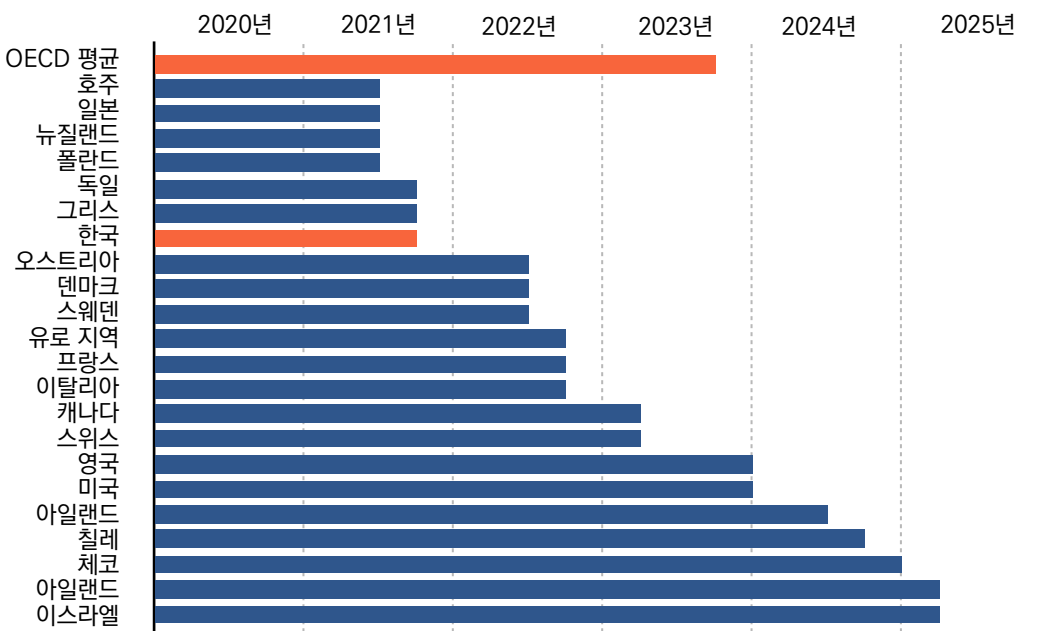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: 조선일보, 2021.07.09, "코로나 실업자 1억명... 감당 못할 속도로 일자리가 사라졌다" (https://www.chosun.com/international/international_general/2021/07/09/BPTT6MMAIJF63NYLIM5E64KLGU/?utm_source=naver&utm_medium=referral&utm_campaign=naver-news)

● 팬데믹 이전 고용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기간 - OECD 평균 2023년 3/4분기, 한국은 2021년 3/4분기

- OECD는 회원국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의 고용률을 회복하는 데는 평균 2023년 3/4분기로 전망했는데, 한국은 이보다 2년이 빠른 2021년 3/4분기로 예측했다.
- 한국과 비슷하게 2021년 3/4분기 이내에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‘호주’, ‘일본’, ‘뉴질랜드’, ‘폴란드’, 독일, 그리스 등이다.

[그림] 코로나19 이전 고용을 회복 기간(OECD 회원국) (년)



*자료 출처: OECD, 'A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', 2021.07.07. (<https://www.oecd.org/employment-outlook>)